

GIST 환경·에너지공학부 김준우 박사과정생,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장관상 수상

- 에어로졸공학모니터링 연구실(지도교수 박기홍) 김준우 학생 공모전 1위...
10월 23일 열린 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상작 12편 선정
- "연구실에서 수행한 농촌지역 미세먼지 원인 규명 연구의 확장·적용 위해 도전"



▲ 환경·에너지공학부 박사과정 김준우 학생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차세대 환경연구 인재 발굴을 위해 **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하고 (사)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 '제3회 미세먼지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'**에서 **환경·에너지공학부 김준우 박사과정생이 1위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**

'숨쉬는 지구,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 우리의 연구'라는 슬로건으로 대학(원)생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**대기환경의 변동성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쟁점에 대한 창의적 대응 역량을 찾기 위해** 개최됐다.

김준우 학생은 **에어로졸공학모니터링 연구실(Aerosol Technology and Monitoring Lab, 지도교수: 박기홍)**과 **초미세먼지진단센터(센터장: 박기홍)**에서 수행한 **'현장 측정 기반 농촌지역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연구'**를 기반으로 **"우리나라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의 미세먼지 성분 측정 자료를 국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"**고 밝혔다.

또한 **"연구실에서 개발하고 발전시킨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우리나라 전역의 관측 자료에 확장·적용하고 싶었는데 좋은 연구 기회도 얻고 환경부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"**며, **"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님께 배운 자료분석 및 논문작성 방법을 통해 학술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느꼈고, 이번 성과가 논문 게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"**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.

한편, 이번 공모전에는 **1차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전국 대학(원)생 20개 팀이 참여**했으며,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'2024년 대기환경학회 정기학술대회'에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에 따라 ▲환경부장관상 1편 ▲국립환경과학원장상 1편 ▲우수상 4편 ▲장려상 6편 등 총 12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.